물 오른 '코리안 듀오'…손흥민·황희찬 '연속 골 사냥'

손흥민

손, 오늘 웨스트햄전 골 조준…8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도전
황, 10일 노팅엄 상대 홈경기…김민재·이강인도 9·10일 출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 순위표 상위권에 자리 잡은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연속 골 사냥에 나선다.

7일 현재 EPL 2023-2024시즌 득점 순위를 보면 손흥민이 9골로 3위, 황희찬이 8골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4골을 몰아친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선두, 10골의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현재 2위로, 세계적인 공격수들의 바로 뒤에서 한국 선수들이 득점 순위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홀란과 살라흐의 리그 득점포 가동이 주춤한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 각각 골 맛을 본 손흥민과 황희찬은 이번 주말에도 기세를 이어갈 참이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8일 오전 5시 15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웨스트햄과 EPL 15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11일 오전 1시 30분엔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뉴캐슬과 16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9위(승점 21)인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 3경기(2승 1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경기를 포함하면 공식전 5경기 무패(4승 1무)를 달리고 있고, 7위(승점 26)인 뉴캐슬도 리그 2연승 중이라 토트넘으로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4일 맨시티와의 14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3-3 무승부를 기록, 리그 3연패에서 벗어난 5위(승점 27) 토트넘은 내친김에 승리에 도전한다.

맨시티전에서 전반 6분 선제골을 넣은 이후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책골을 기록했으나 후반전에 도움을 하나 추가하며 연패 탈출의 발판을 놨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0호 골을 정조준한다.

이제 한 골을 추가하면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8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하게 된다.

6일 번리와 15라운드를 치른 13위(승점 18) 울버햄프턴은 10일 16위(승점 13) 노팅엄을 몰리뉴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여 연승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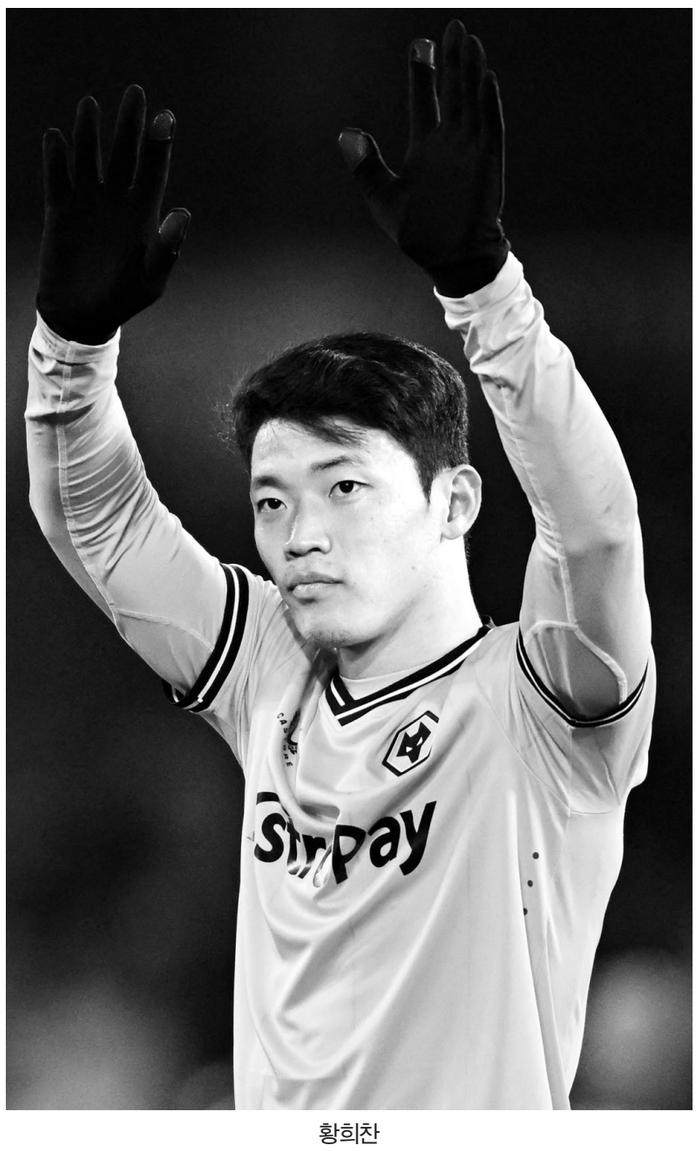
황희찬은 번리전에서 전반 42분 선제 결승 골로 1-0 승리와 리그 2연패 탈출을 이끈 바 있다. 황희찬이 2021년 EPL 입성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2도움)를 이루는 의미 있는 골이기도 했다.

특히 울버햄프턴과 재계약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황희찬은 이번 시즌 7차례 리그 홈 경기 중 6경기(6골)에서 골을 넣을 정도로 안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홈 경기 골과 함께 리그 10호 골 고지에도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독일 분데스리가 2위(승점 32) 바이에른 뮌헨은 9일 오후 11시 30분 프랑크푸르트와의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소속팀과 대표팀에 오가며 대부분 풀타임 경기를 치러 '혹사' 우려를 낳았던 김민재는 지난달 말 코펜하겐(덴마크)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때 엉덩이 타박상으로 결장했고, 2일 우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13라운드가 폭설로 연기되며 더 휴식할 수 있었다.

이강인이 활약하는 프랑스 리그1 선두(승점 33) 파리 생제르맹(PSG)은 10일 오전 5시 낭트와 15라운드 홈 경기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황희찬

포환던지기 9연패 정일우·육상 유망주 이은빈 '최우수선수상'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해단식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성공 체전 힘써 줘 감사"

7일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팀상 수상자들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우수선수상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수시청)·단거리 육상 이은빈(전남체고), 최우수팀상을 받은 전남도청 우슈 장보근 감독·광양여고 주경중 교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전남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체육회 임원, 시군체육회 임원, 입상 학교장 및 선수, 지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단식에서는 대회에 참가했던 전남도선수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최우수선수상은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 9연패를 달성한 정일우(여수시청)와 단거리 육상 유망주 이은빈(전남체고·2년)이 수상했다.

최우수팀상은 축구에서 올해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한 광양여고와 전남의 전국체전 종합 4위에 큰 역할을 한 전남도청 우슈팀에게 수여됐다.

전남의 미래 유망 선수에게 수여하는 전남도의장상은 양궁 스타 조한이(순천여고·1년)와 자전거 유망주 나윤서(전남미용고·3년)가 수상했고, 육상에서 3관왕을 달성한 송수하(전남체고·3년)는 태극상을 받았다.

공로 부문에서는 2년 연속 대회 종합 1위를 달성한 전남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김재웅)과 고등부 배구 전국 최강인 순천제일고(교장 황태식)가 상을 받았다.

경기력이 향상된 종목 단체에게 수여되는 성취상패는 전남테니스협회(회장 유인숙)와 전남배구협회(회장 조재만), 전남하키협회(회장 변춘섭)에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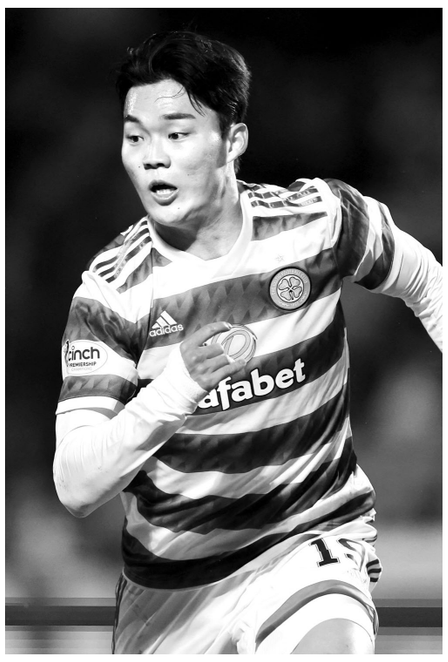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과 성과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선수, 지도자,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간소화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오현규 멀티골…셀틱 4-1 대승 이끌어

하이버니언전서 리그 4·5호 골


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활약하는 골잡이 오현규(22)가 리그 4·5호골을 잇달아 터트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셀틱은 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6라운드에서 하이버니언에 4-1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셀틱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개막 이후 16경기 연속 무패(13승 3무·승점 42)를 이어가며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하츠(승점 34)와 승점 차를 8로 벌리고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는 전반 5분 선제골에 이어 3-0으로 앞서던 후반 10분 추가골까지 책임지며 멀티골을 완성한 뒤 후반 18분 후루하시 교고와 교체됐다.

지난 13라운드 애버딘을 상대로 2골을 터트렸던 오현규는 이날 또다시 멀티골을 작성, 이번 개인 통산 5골로 득점 랭킹 공동 7위에 올랐다.

오현규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행운이 섞인 골 맛을 봤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카메론 카터-비커스의 슈팅이 골대 앞에 있던 오현규의 몸을 맞고 굴절되며 골 물을 흔들었다.

셀틱은 전반 36분 맷 오릴리의 헤더 추가골이 터져 전반을 2-0으로 마쳤다.

후반 6분 루이스 팔머의 페널티킥 쐐기골로 3-0을 만든 셀틱의 마지막 득점은 오현규가 책임졌다.

오현규는 후반 10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쇄도한 뒤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네 번째 골을 터트렸다.

오현규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멀티골이었다.

스트라이커의 책임을 완수한 오현규는 후반 18분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후루하시와 교체됐다.

셀틱은 후반 27분 한 골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을 막고 3골 차 완승을 거뒀다. 이날 63분을 소화한 오현규는 3차례 슈팅에 2골을 터트리는 결정력을 발휘했고, 소파스코어는 오현규에게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6을 줬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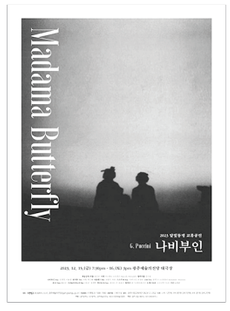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3관	나폴레옹, 프레디의 피자가게
4관	서울의 봄
5관	서울의 봄, 교토에서 온 편지, [위드키즈]극장판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진정한 용기!
6관	서울의 봄
9관	싱글 인 서울, 뉴클리어 나우
7관 씨네커플	3일의 휴가, 매직 프린세스: 얼음 괴물과 사라진 열쇠의 비밀
8관 씨네커플	나폴레옹, 프레디의 피자가게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맹 교류공연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